

\* 사진 및 글의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 아이와 함께 자동차로 여행한 147일간의 유럽 이야기

3 권

네이버 블로그 '담장위 고양이'

<http://noraneko77.blog.me/>

헤어질 연인처럼 아름다운, 체코



o 여행기간 : 6.13 ~ 6.20 (8일)

o 여행도시 : 체스키크룸로프, 프라하

오스트리아를 떠나 체코로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체코의 전통가옥이 잘 보존된, 오래된 도시 체스키크룸로프였습니다. 체코의 국경을 넘자마자 처음으로 만나 주유소에서 비넛 부터 사서 부착했습니다. 동유럽 중에서도 유독 체코에서 비넛 단속에 걸린 후기가 많더라구요. 지나온 나라가 많다보니 차창에 훈장처럼 나라별 비넛들이 붙어 있습니다.



체스키크룸로프는 유럽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 같아보였습니다.

도시의 회색빛 빌딩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오직 붉은색 지붕들과 푸른 숲만 보였지요.



놀이공원에 가면 테마파크가 있잖아요. 유럽의 마을을 꾸며놓은 듯한.. 딱 분위기가 그랬어요. 옛 도시의 아름다움과 복잡거리는 사람들, 게다가 체코의 물가는 또 어찌나 저렴한지. 어디 하나 빼놓을 것 없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체코의 물가(物價)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근사한 노천카페에서 스테이크 정식을 시켰음에도 7~8천원 정도 밖에 하지 않았구요, 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맥주는 한 병에

300~4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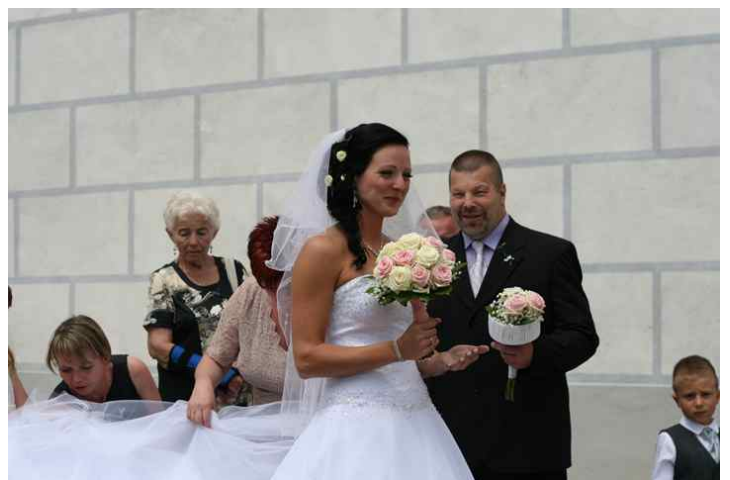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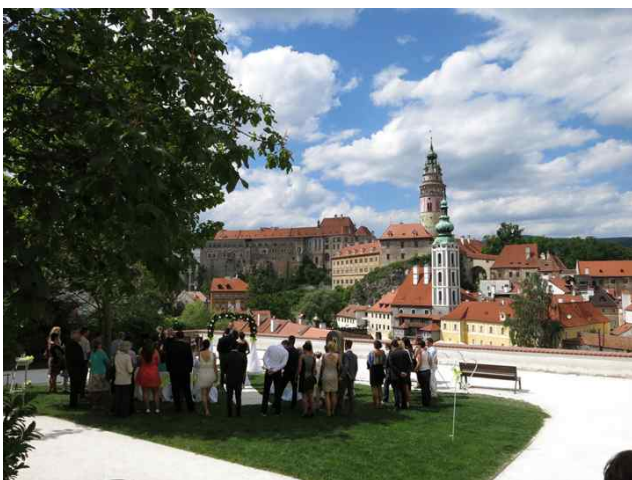
1코룬이 약 50원 정도 합니다. 위 진열대의 가격표에 50을 곱하면 우리나라 가격이 되겠지요. 가격이 6.9코룬 이라고 적힌 맥주는 350원 정도 되겠습니다. 감브리너스 5L 대용량 캔은 179코룬이니까, 9000원 정도 하네요.



음식, 맥주 물가만 저렴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저렴했어요. 체스키크룸로프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외곽에 숙소를 잡았는데 마침 아울렛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전자제품 매장에서 구입한 외장 하드 디스크는 동일한 모델로 검색한 우리나라의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했구요, 근사한 아디다스 저지는 5만원이 채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친절했고, 공기는 깨끗했습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도 우리나라 서울처럼 숨쉬기 답답한 매연은 한 번도 느끼지 못했어요. 나중에 은퇴 후 노년을 외국에서 보낼 수 있다면 꼭 체코에서 머물고 싶은 욕심이 들만큼 좋았습니다. 딱 한가지 단점이라면 체코의 국경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접하고 있다보니 영어 보다는 독일어로 대화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중에 책을 한 스무권 싸들고 와서, 나른한 별을 찍며 독서를 즐기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다시 차를 달려 체코의 수도 프라하로 향했습니다.



프라하에서는 5박 6일간 머물 예정이라 숙소를 고르는데 꽤나 공을 들였습니다. 거실과 주방, 테라스와 세탁기 등이 완비된 아파트였어요. 숙소 근처에 큰 규모의 한인마트가 있어 우선 장을 보고 들어와 여행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떡볶이를 해먹었습니다. 이걸 그동안 어찌나 먹고 싶었는지! 맥주 한 캔이 술술 넘어가더군요.



이제 트램을 타고 시내 중심부로 이동을 합니다.

체코(Ceska Republica)는 얼마 전 까지 공산주의 국가였지요. 동유럽의 공산국가.. 그런데 이 나라의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본래 연방제 공화국이었던 체코슬로바키아는 1939년 독일 나치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말, 1945년 소련군이 체코슬로바키아에 진격하여 해방될 때까지, 나치 치하에 있게 되었죠. 그 시기(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일제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남쪽은 미국에 의한 민주주의 정부가, 북쪽은 소련에 의한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지요. 하지만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의 영향으로 공산주의 정부

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억압 속에서 살 수 없 듯.. 언론, 이동의 자유마저 통제하던 당시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반발이 체코 내에서도 꾸준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68년, '프라하의 봄'이라고 일컫는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지요.



민주화 바람이 다른 동유럽 국가에도 미칠 것을 우려한 소련은 곧바로 체코 슬로바키아를 침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체코 시민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1987년 소련이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의해) 자본주의 정책을 받아 들이기 전 까지 체코 역시 공산주의 정부가 유지되었고, 1989년 변화의 물결을 타고, 평화적인 벨벳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로 전환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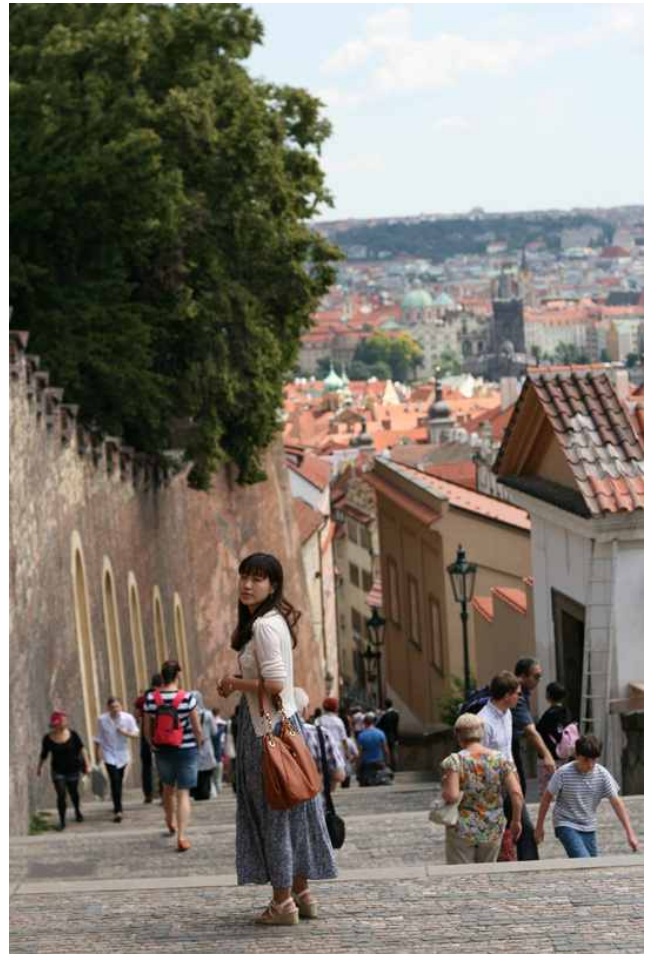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 되었습니다.



소설과 영화 ‘프라하의 봄(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막연한 호기심을 갖고 있던 터라, 프라하에 꼭 한 번 오고 싶었습니다.



우선 트램을 타고 프라하궁으로 갔습니다. 프라하궁에서 근위병 교대식과 탁 트인 프라하 시내의 전망을 보고, 성 비투스 대성당과 황금소로를 지나 까를교로 내려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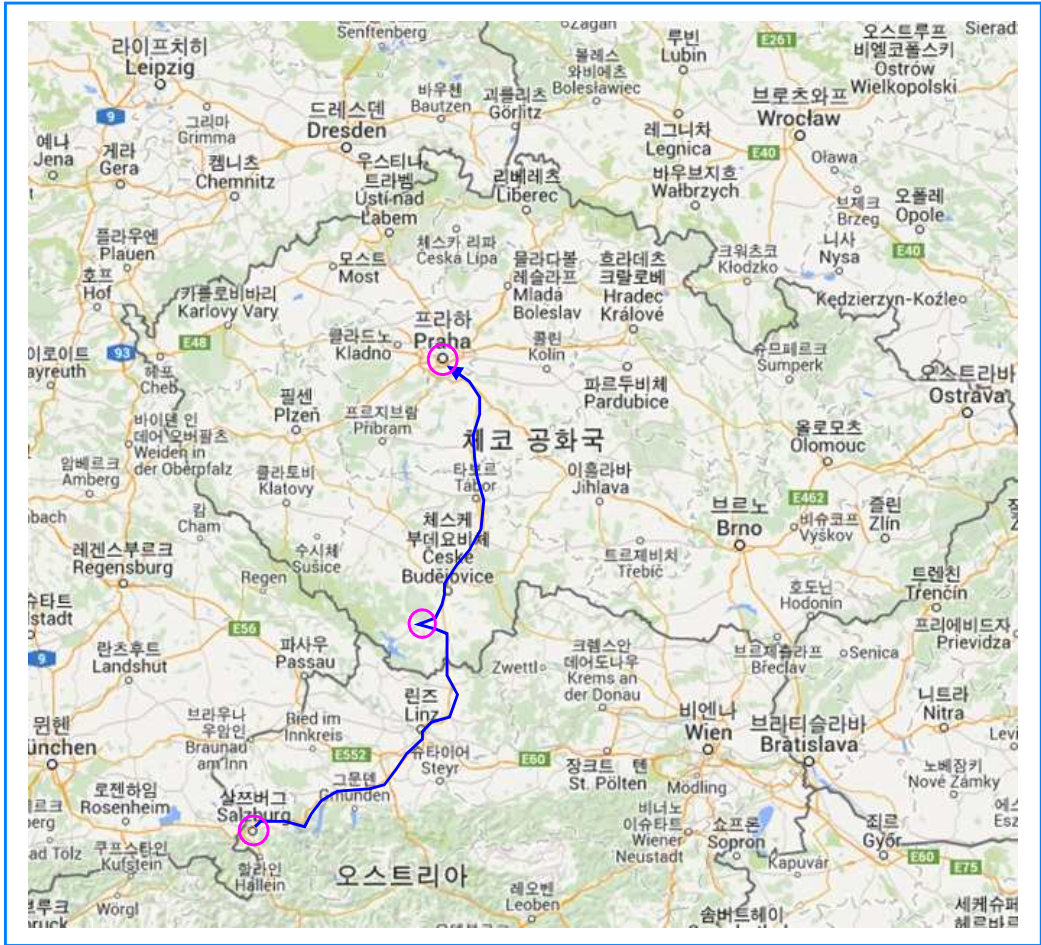
까를교.. 프라하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까를교가 떠오릅니다. 나른한 햇살이 비치는 까를교와 경쾌한 연주를 하던 거리의 음악가.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연주에 귀를 기울이고 있노라면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박수소리, 다리 위에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관광객의 모습 등.. '이 순간이 참으로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조금 더 걸어가면 천문시계탑이 있는 광장이 나오고, 거기서 조금 더 걸어가면 '하벨시장'과 화약탑(Powder Tower)이 나옵니다. 그 일대가 전부 변화가입니다.



프라하에 머무는 닷새 동안 시내를 참 많이도 걸었습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이름을 딴 식당도 들어가고, 저렴한 물가를 즐기며 기념품이 될 만한 것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지요. 아쉬운 시간을 뒤로한 채 까를교와 프라하궁의 야경을 보며 프라하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체코에서의 여정]

# 마음마저 추웠던, 폴란드



o 여행기간 : 6.20 ~ 6.22 (3일)

o 여행도시 : 포즈난

폴란드는 여행을 출발하기 전까지는 계획에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사진을 보고 기존의 일정까지 들어가며 억지로 여정에 넣게 되었지요. 그 사진은 폴란드 포즈난의 하지(夏至) 축제 사진이었습니다.



위 사진은 제가 촬영한 게 아니라 홈페이지 어딘가에서 발췌한 사진입니다. 낮이 가장 긴 하지(夏至) 날, 폴란드의 지방도시 포즈난(Poznan)에서 하늘에 수천, 수 만개의 풍등을 날리는 '노츠크파위(Noc Kuplay)' 라는 축제를 해마다 벌여 왔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도 오를 만큼 대규모의 풍등 날리기 축제라고 해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퐁젤'의 풍등 장면도 이곳 축제에서 모티

브를 얻었다고 하구요. 이 축제를 꼭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녀석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도착 보름 전 즈음에 폴란드의 교민 분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우연히 인터넷 블로그를 보게 되었는데, 하지에 맞춰 포즈난으로 온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풍등 축제는 주최 측의 사정으로 취소가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신문기사를 링크 걸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친절하게도 이런 내용의 쪽지 였습니다.

기사를 확인해보니, 정부의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화재 따위의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 되어 올해의 풍등축제를 일단 취소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더군요. 갑자기 동선을 바꾸는 건 무리가 있고, 그리고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소규모의 자발적인 주민 행사는 치러지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 우선 포즈난으로 향했습니다.



프라하에서 포즈난까지 500km가 넘는 먼 거리였고, 네비게이션이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국도로 안내하여 7시간을 넘게 운전을 하고, 탈진 일보직전의 상태로 포즈난에 도착하였습니다. 동유럽이라서 그런지 날씨도 스산하여 점퍼를 꺼내입고 목도리까지 해야 했어요. 4월의 스페인 남부해안에서는 수영을 즐겼는데, 여름의 한가운데 ‘하지’에는 추워서 외투를 입어야 한다니.. 아무리 여행 중이라지만 계절감이 뒤섞여 혼란스럽더군요.

호텔에 도착해 리셉션에 물어보고, 거리에 나가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물어보았는데, 풍등축제(노츠쿠파위)의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대신 ‘말타 페스티벌(Malta Festival)’ 이라고 하는 여름 축제를 하고 있다며 행사장의 위치를 알려주더군요. 우선 그곳에 가서 축제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풍등 날리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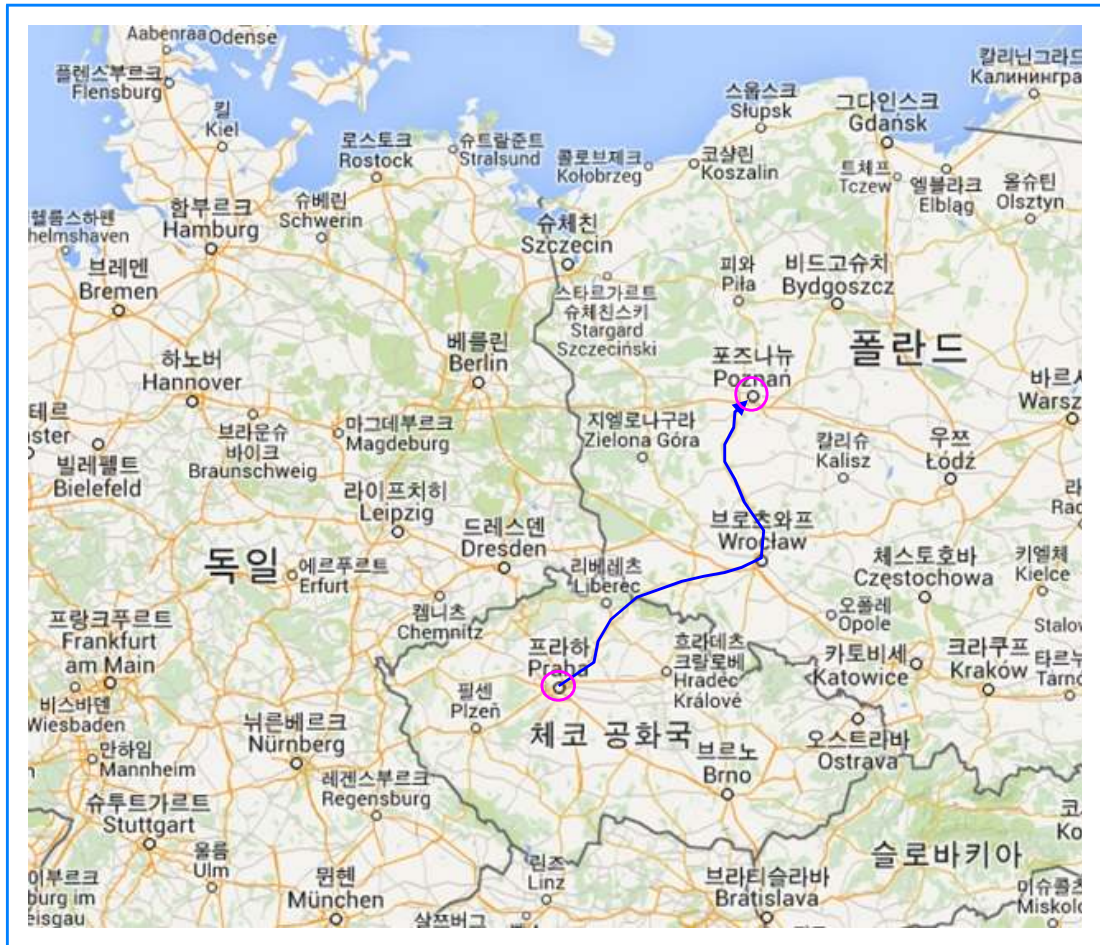
지난해까지 풍등을 날려왔던 곳을 미리 찾아가보기도 했어요. 저녁에 길을 잃고 헤매면 안되니까요. 다행히 저희 말고도 관광객, 특히 일본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풍등을 날려왔던 강변의 잔디밭에서 중세시대의 복장을 하고 전투 연습을 하던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있자니 ‘설마 소규모 행사라도 진행 되겠지.’ 라는 기대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결국 풍등 축제는 하지 않았어요. 밤 11시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저희처럼 강가를 서성이는 관광객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다보면 잔뜩 기대를 품었던 곳에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기도 하는데, 포즈난의 풍등축제는 결국 실망스러운 기억만 남은채 끝나버렸습니다. 저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이니 얼른 마을을 털어버려야겠지요. 짧았던 폴란드 여행을 뒤로하고, 이제 독일을 향해 달려 갑니다.



[폴란드에서의 여정]

# 분단의 역사를 간직한 독일



o 여행기간 : 6.22 ~ 6.24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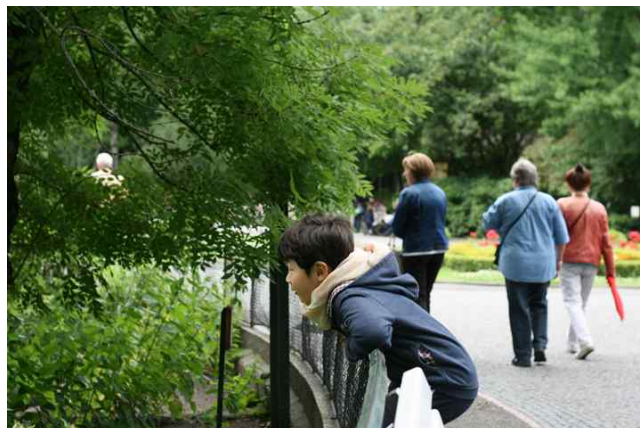
o 여행도시 : 베를린, 브레멘

처음 여정을 잡을 때에는 독일을 일주일 이상 체류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며 각 지방의 맥주와 소시지를 맛보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폴란드 포즈난의 풍등축제에 대해 알게되어 일정을 많이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지도 못했지만..

프랑스 파리의 아파트를 이미 한달 월세 계약을 맺어놓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를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기간동안 둘러보고, 7월 1일까지 도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짧게 베를린만 둘러보고 가기로 했어요.



시내에서의 이동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숙소를 시내 중심에 잡았습니다. 전승기념탑이 있는 티에르가르텐 인근이었고, 브란덴부르크 문까지 걸어서 갈만한 거리였습니다. 도착한 첫날은 우선 숙소 근처의 베를린 동물원부터 방문했습니다.



입장료가 비싼 만큼, 시설은 훌륭했습니다. 놀이터가 잘 꾸며져 있어서 이 녀석을 달래서 데리고 나오느라 고생을 좀 했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동물원의 입장료가 터무니없이 저렴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동물원도 런던의 동물원도 입장료가 어마어마 했거든요. 대충 우리나라의 열 배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몇 천원 주고 들어가던 걸 몇 만원 내고 들어가려니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구요.



이튿날 아침, 숙소를 나서자 곧 전승기념탑이 보입니다. 조금 더 걸어가면 천장을 유리 돔으로 꾸민 제국의회의사당(국회의사당) 건물이 나오고, 바로 인근에는 브란덴부르크 문이 있습니다.



분단을 상징하는 베를린 장벽과 브란덴부르크 문. 브란덴부르크 문은 1791년 세워진 일종의 개선문인데, 베를린이 동서로 나뉘게 된 후 이 브란덴부르크 문을 통해 베를린장벽을 건너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 되고,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많은 독일인들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 이 브란덴부르크 문으로 모여들었다고 하지요.



베를린 장벽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겨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아들 녀석에게 들려줄 역사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쉬지 않고 떠들게 되네요.



유대인 학살에 대한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고 추모하는 공원입니다. 관을 형상화한 돌무덤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수도의 한 가운데 이런 역사적 반성의 상징물을 세운 독일과 제국주의 침략 전범을 추모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도쿄 한 가운데 둔 일본이 새삼 비교 됩니다. ‘미안합니다. 저희의 과오를 반성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걸까요?



‘체크포인트 찰리’ 까지 걸어왔습니다. 베를린 시내를 밟이 부

르트도록 걷기로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전범 국가인 독일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네 나라에서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다 자유진영에 속하던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통치 지역은 자연스레 하나로 통합되었고, 결국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인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죠. 체크포인트 찰리는 동서 베를린의 경계지점에 있던 관문이었는데, 지금은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판문점의 모습이 저렇게 될까요?



베를린의 기념품점에 가면 베를린 장벽의 조각을 팔고 있어요. 돌조각을 몇천원에 팔고 있어요. ‘진짜’ 라는 증명서도 준다고 하니 웃음이 나옵니다.



박물관 섬을 지나 베를린 돔을 향해 가는길, 슈프레 강을 지나

는 유람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 했습니다. 숙소까지 다시 걸어오는 길은 멀고 힘들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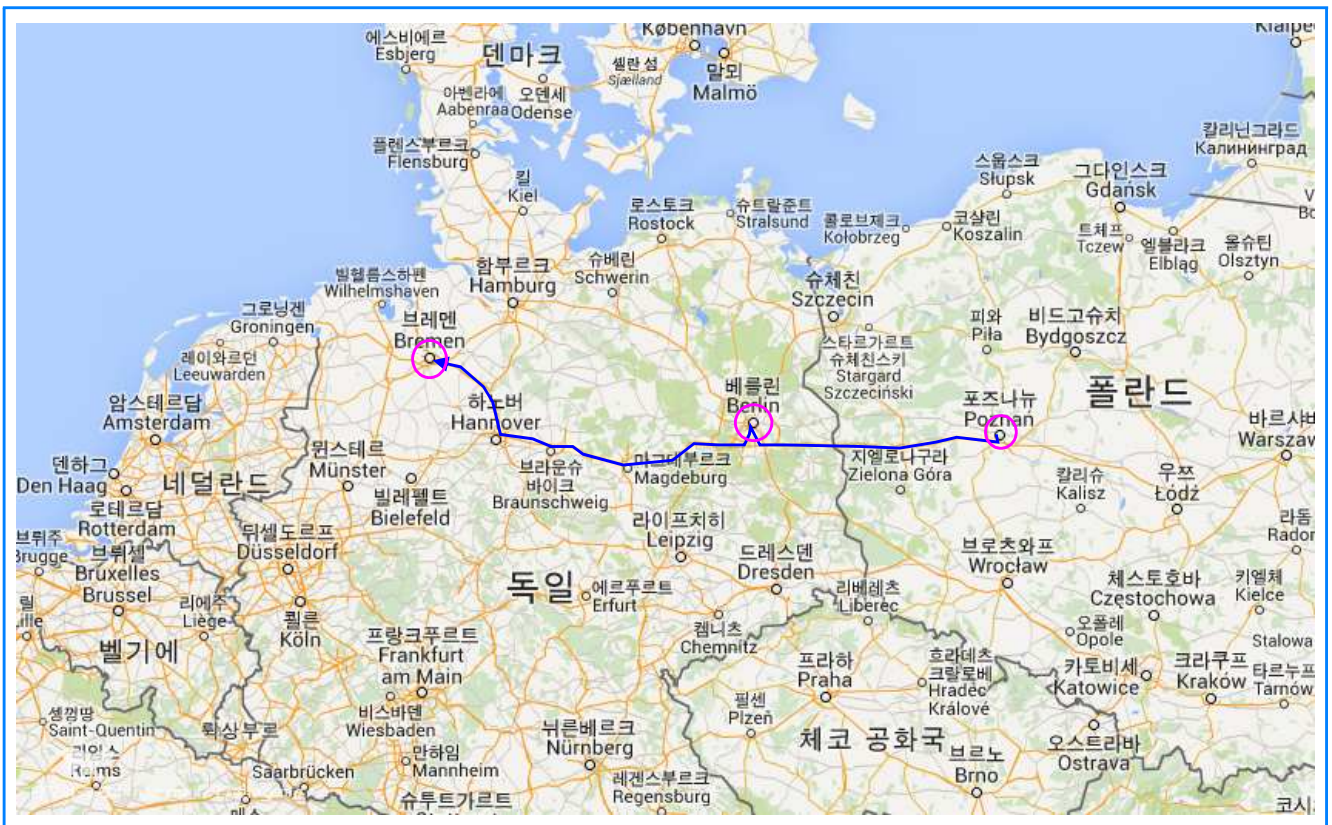
이제 독일을 벗어나 네덜란드로 향합니다. 600km 가까이 되는 거리로 독일을 거의 횡단해야 하는 일정이에요. 그러다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 녀석이 유독 좋아하는 동화가 '브레멘의 동물 음악대' 인데, 가는 길에 100km 정도를 우회하면 브레멘을 거쳐갈 수 있거든요. 집사람과 상의 끝에 이왕 가는 길, 잠시라도 들렀다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게 들렀다 가는 브레멘. 이 녀석이 너무 좋아해서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오늘의 장거리 이동에 독일의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700km에 가까운 거리를 최고 시속 170km로 달렸거든요. 일부러 빨리 달린 건 아

닌데, 앞차와 차간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다 보니 속도계의 바늘이 170을 넘었더라구요. 게다가 독일의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무료 였습니다! 여러모로 독일의 고속도로 덕을 많이 보았지요.

이제 고희의 나라, 풍차와 치즈의 나라, 네덜란드로 넘어 갑니다.



[독일에서의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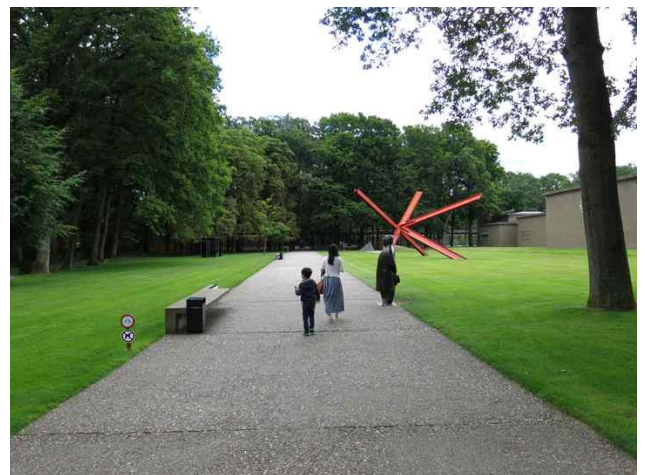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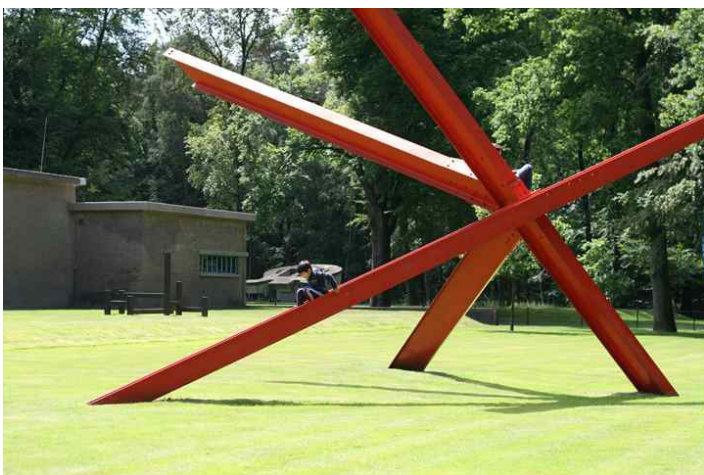
고흐를 찾아서, 네덜란드



o 여행기간 : 6.24 ~ 6.27 (4일)

o 여행도시 : 오펜젤로, 암스테르담, 알크마르

취미로 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집사람은 여러 나라의 미술관을 방문하는 것을 재미있어 했지만, 그림에 있어 까막눈이나 다름 없는 제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요. 그런 제게도 좋아하는 화가가 한 명 있었으니, 그가 바로 고흐(Vincet Van Gogh) 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 중 고흐와 관련된 미술관은 가급적 모두 둘러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반 고흐 미술관을 제외하고는 고흐의 가장 많은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크뤼러 뮐러 미술관'은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었지요.



크뤼러 뮐러 미술관은 네덜란드의 국립공원인 '호헤 벨루에 (Hoge Velowe) 공원'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업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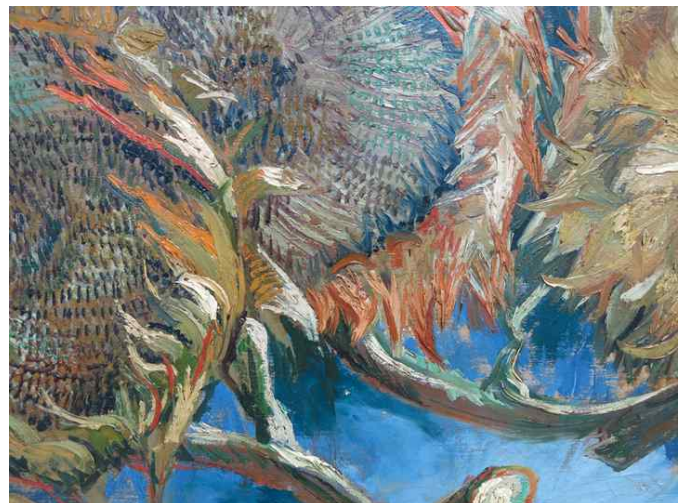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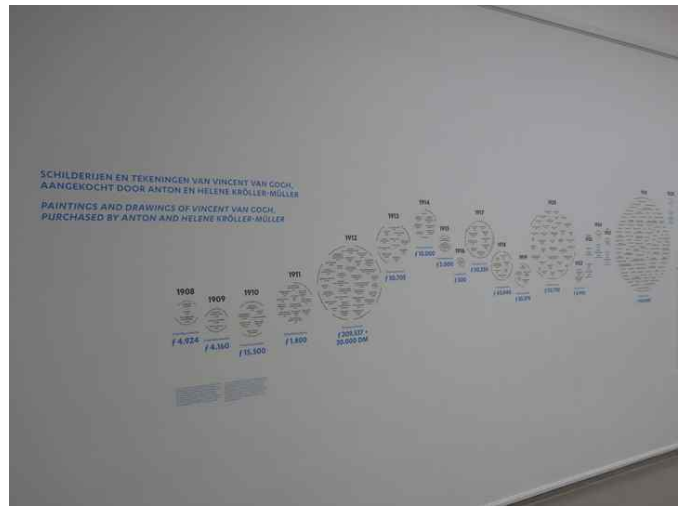


아버지, 선박회사를 운영하던 남편에 의해 부유한 삶을 살았던 '크윌러 밀러'는 자신의 재산을 사교계에 쏟아 붓는 대신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예술작품을 수집하는 일에 투자하였습니다. 몬드리안이 몸 담고 있던 신조형주의, 스틸 예술 운동을 후원하기도 하였고,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눈여겨보아 일찌감치 수집을 하는 안목도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반 고흐의 작품에 애정이 남달랐던 그녀에 의해 크윌러 밀러 미술관은 고흐의 작품을 고흐 미술관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이 자리잡고 있는 '호헤 벨루에' 공원은 본래 크렐러 밀러 부인의 남편 '안톤 밀러'의 개인 사냥터였다고 하니, 재산의 규모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사냥터(현재의 국립공원 부지)를 포함한 모든 수집품을 네덜란드 정부에 기증하고 갔으니 마음 씀씀이 또한 그녀의 수집품처럼 아름다웠지요.

반 고흐 전시실 입구에는 크렐러 밀러가 고흐의 작품을 수집한 기록이 연대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밤의 카페 테라스'를 비롯한 유명한 작품이 많이 보입니다.



네 송이의 해바라기입니다.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유화를 얼마나 두텁게 덧발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작품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즈음 이 곳을 직접 보고 왔었지요. 프랑스 아를의 '밤의 카페 테라스' 입니다. 물감을 살 돈이 없어 동생 테오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어렵게 그림을 그렸음에도 고집스럽게 물감을 두텁게 발랐습니다.



고흐의 그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우편배달부나 공장의 노동자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인물화가 많다는 점입니다.

다. 고흐가 살았던 1800년대 후반에는 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화가를 불러 초상화를 그려 집안을 장식했는데, 무명의 고흐에게 초상화를 의뢰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은 마음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고 미친 듯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작품명이 ‘남자의 두상’ 혹은 ‘여자의 두상’ 이런 것들이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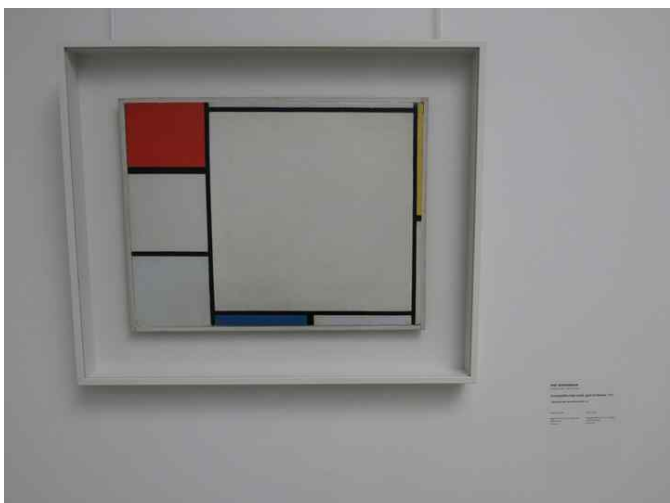


이러한 화법이 있는거겠죠? 고흐의 그림은 해상도 낮은 그림파일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사진처럼 생생한데, 가까이에서 보면 알 수 없는 붓터치가 가득합니다. 며칠 뒤 고흐 박물관에서 관련된 설명을 읽었는데, 빛의 방향까지 계산한 붓터치라고 하더군요.

고흐는 자신이 죽은 뒤 자기가 그린 그림들이 영화의 반열에 오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천재성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원망이 가득하지는 않았을까요?



엄마와 아빠의 통사정에 뛰어놀고 싶은 욕구를 꼭 참고 그림을 감상하던 아들이 달려와 말합니다. “엄마, 내가 나가는 문을 발견했어요! 저쪽으로 가면 되.”



고흐 작품 외에도 유명한 화가의 작품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LG 에어컨에도 사용된 몬드리안의 그림도 있네요.



야외에도 조각 작품과 설치미술 작품이 많았는데, 지루해하는 아들 녀석의 성화에 길게 보지는 못하고 미술관을 빠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오후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습니다. 국립미술관에 찾아갔는데, 암스테르담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서있더군요. I am sterdam

위에서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저는 왼쪽 사진의 t 위에 올라섰는데 보이지도 않는군요.

그동안 네덜란드 라는 나라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었던 건지 암스테르담에 머무는 동안 적잖은 실망을 했었습니다. 거리의 상점에서는 대마초와 성(性) 용품들을 쇼윈도에 버젓이 진열



하여 판매하고 있었고, 카페 골목을 지날 때면 그 좁은 골목에 매캐하여 퍼지던 대마초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습니다.

풍차의 나라, 튜립의 나라, 해수면이 지면보다 높은 운하의 나라.. 그런 이미지들이 도대체 어떻게 제 머리 속에 자리 잡은 걸까요? 혹시라도 아들 녀석이 쇼윈도의 상품을 가르키며 ‘아빠 저건 뭐야?’ 라고 물어볼까봐 도망치듯 가게 앞을 지나갈 때 마다 한숨이 나오곤 했습니다.

제가 풍류(?)를 즐기는 총각이었다면 모를까, 가족과 여행하기에 암스테르담은 정말 실망스러운 도시였어요. 주요 관광포인트 중 하나가 ‘홍등가(매춘업소)’ 라고 하니 말 다한거지요. 아름다운 도시를 상상하고 온 제게 현재의 암스테르담은 그저 퇴폐적인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지도를 펼쳐보면 흡사 거미줄 모양으로 운하가 겹겹이 흐르고 있습니다. 걷다보면 운하 나오고, 다리를 건너 걷다 보면 다시 또 운하가 나와요. 마침 운하에서 조정 경기를 하고 있더군요. 암스테르담의 주요 포인트 중의 하나인 담광장(Dam Square). 첫날 방문했을 때에는 도로가 통제되고 경찰과 소방관들이 사방에 깔려 있어 접근도 못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를 검색해보니 폭탄테러로 의심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고 하더군요. 여행이 길어지다 보니 참 다이나믹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고흐 미술관을 찾아갔습니다. 고흐의 유일한 후원자였던 동생 테오의 후손들이 보유하고 있던 그림과 편지, 자료들을 정부에 기증해 세워진 미술관 이지요. 고흐의 작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크렐러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 테이트모던 미술관 등 유럽 대부분의 미술관이 사진촬영을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고흐 미술관에서는 촬영을 엄격히 금하고 있더군요. 고흐의 자화상은 꼭 사진에 담아오고 싶었는데.. 아쉬운 마음에 출입구 바깥쪽 먼발치에서 사진을 남겨 보았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숙소 가격이 너무 비싸, 트램을 타고 한시간 가까이 나가야 하는 외곽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아랍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숙소 앞 공원에 들토끼가 굴을 파고 사는데, 어찌나 많은지 셀 수가 없더군요. 신이 난 아들 녀석이 그걸 잡아 보겠다며 땀이 흐르도록 뛰어 다니는데,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나마 암스테르담을 추억할 수 있는 좋은 에피소드였지요.



벨기에로 떠나기 전, 암스테르담에서 자동차로 한시간 정도 떨어진 알크마르(Alkmaar)에 들렀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에 전통적인 방식의 치즈시장이 열린다고 하더라구요. 도착해보니 이미 시장이 한참 열리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치즈시장이 모두 현대화 될 때, 이곳 알크마르에서는 ‘우리만큼은 전통을 지키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든 시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수십년 뒤 그 어느 곳에서

도 보기 힘든 전통 치즈시장으로 자리매김하여, 이 작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관광 상품이 되었지요. 도시는 작고 아름답다운데, 사람들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치즈의 무게를 재는 저울 위에 올라간 아들 녀석. 치즈 상인들이 모자까지 씌워주더군요. 그렇게 쟀 몸무게는 증서까지 발급해 주는데, 글썄 26Kg이 나왔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에는 21~22Kg 정도 였는데, 불과 몇 달 만에 5Kg 가까이 몸무게가 늘다니.. 이 녀석도 여행이 체질인가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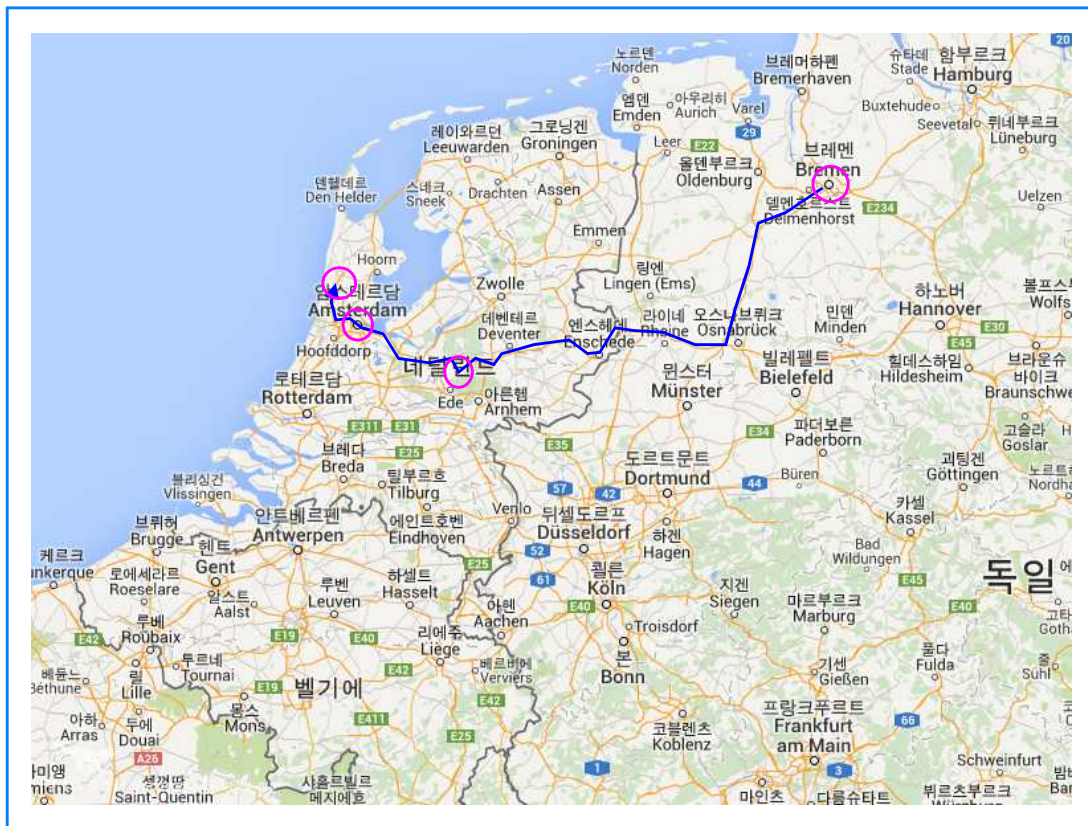


즉석에 잘라주는 치즈도 맛보고, 작은 걸로 한덩이 구입했습니다. 나중에 프랑스에서 와인과 술안주로 맛나게 먹었지요.



낙찰 받은 상인들은 치즈를 운하 위의 배로 실어 나르더군요. 제가 생각하던 네덜란드의 이미지가 딱 알크마르였던 것 같습니다.

다. 도시는 아름답고, 여유로움마저 느껴집니다. 한적한 유럽의 작은 마을 같았어요. 암스테르담에서 실망했던 마음이 이곳에서 확 풀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지요. 네덜란드에 실망할 뻔 했는데, 그렇지 않은 점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네덜란드를 떠나 벨기에로 이동합니다.



[네덜란드에서의 여정]

이런 순간에  
스치기엔  
조금



o 여행기간 : 6.27 ~ 6.29 (3일)

o 여행도시 : 브뤼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 세 나라를 합쳐 베네룩스 (BeNeLux) 3국 이라고 부르지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런던으로 망명한 이 세나라의 정부는 3국 모두 작은 나라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협력이 필요한 공동체 라는 데에 의견을 모아 우선 경제동맹부터 결성하게 됩니다. 이후 군사동맹으로 까지 확대를 추진하는데.. 이 작은 (나라들의) 움직임이 유럽경제공동체를 발족하는 초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 3개국을 모두 방문 하는 것이었는데, 일정상 벨기에는 짧게 스쳐 지나가고 룩셈부르크는 아쉽게도 가보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로 인한 일정 조정 때문에..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Brussels)과 브뤼헤(Brugge) 중 어느 도시를 방문할까 고민을 하다 훨씬 평이 좋은 브뤼헤를 방문하였습니다. 브뤼셀은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하더라구요. 별다른 볼거리가 없다는 후기와 함께..



반면 브뤼헤의 구시가(Old Town)는 굉장히 느낌이 좋았습니다. 고풍스러운 거리도 아름다웠고,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많았어요. 와플의 본고장 벨기에 답게 와플가게도 많이 보였습니다. 덕분에 여러 종류의 와플을 맛보았습니다.

또 벨기에 초콜릿이 유명하잖아요. 수제 초콜릿을 파는 상점도

많았지만, 편의점에만 들어가도 그 많고 다양한 초콜릿에 깜짝 놀라게 되더군요.



마침 방문했던 날이 토요일이라 그랬는지, 사람들도 북적이고,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또 프랑스의 세일기간 (매년 6월 말~7월말, 프랑스의 거의 모든 매장이 일제히 큰 폭의 세일을 함)과 맞추기라도 한 건지, 대부분의 매장이 40~50%의 세일을

하고 하고 있어 충동구매의 욕구를 참느라 혼났습니다. 키플링 매장은 일본 아주머니들이 점령을 하고 싹쓸이를 하고 있더군요.



구시가지의 중심 ‘마르크트 광장’ 한 켠에 놀이공원 차량이 들어와, 오리낙시를 하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봅니다. 버리고 오겠다고 떼를 쓰다가 엄마한테 야단을 맞았네요. 이런 여유롭고 한가한 일상에 슬며시 미소가 나옵니다.

브뤼헤에 유명한 것이 한가지 있는데, 바로 레이스(직물)입니다. 그 이유는 12세기경 브뤼헤에 세워진 ‘베긴회 수녀원’과 연

관이 깊습니다. 베긴회 수녀원은 독특한 형태로 운영(유지) 되었는데,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일반적인 수녀원과 달리 특별한 종교적 서약을 하지 않고, 또한 세속과 단절된 삶을 살지 않은 여성들이 모여 병든자와 가난한자를 돌보는 봉사적인 삶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베긴회 수녀원에서 생활했던 여성(수녀님)들이 생활비와 운영비를 마련코자 했던 경제활동이 직물제조 였다고 해요. 그래서 오랜 세월동안 직물제조품이 특산물로 유명해지게 된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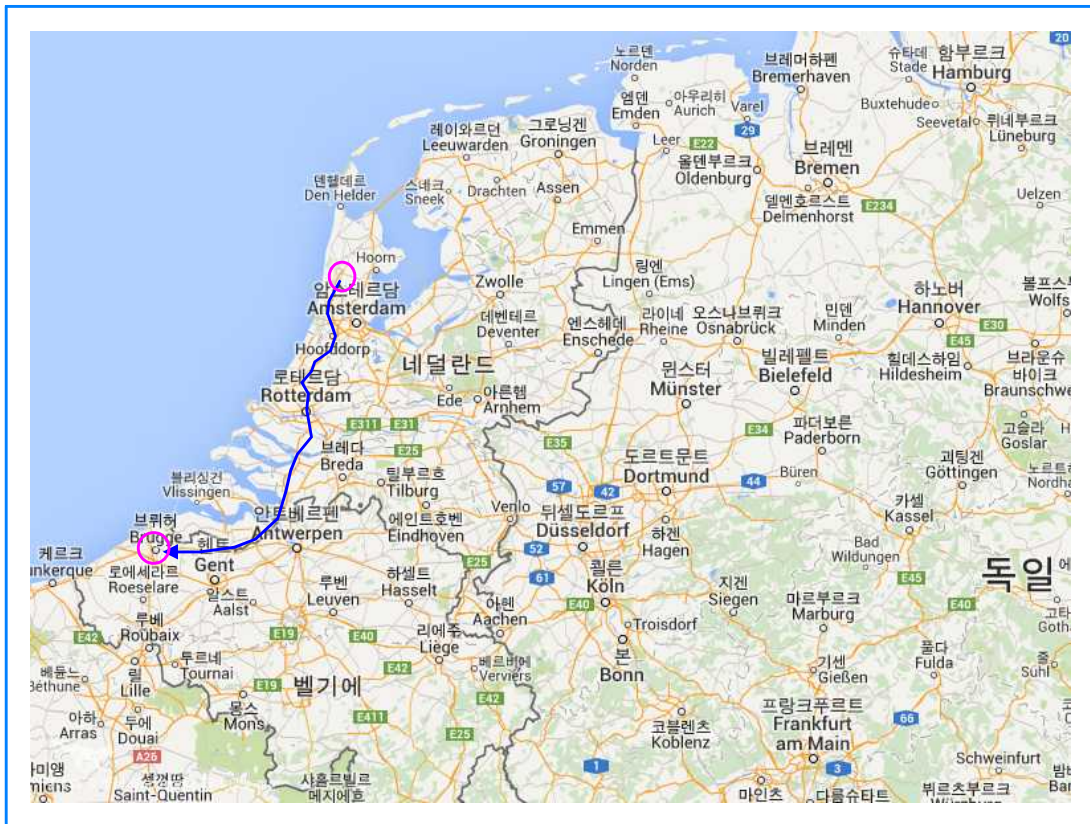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어머니를 위해 미사포를 하나 사려고 하였는데, 의외로 미사포를 파는 곳이 몇 곳 없고 가격이 너무 비싸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런던의 뮤지엄에서 구입한 실크 머플러 보다 비쌌어요.

베긴회 수녀원도 둘러보고, 천천히 구시가를 산책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크면 엄마와 결혼을 하겠다는 아들. 엄마는 기분 좋아 방긋 웃습니다. ‘벌써 아빠 하고 해서 넌 안되는데?’ 라고 했더니 이 녀석이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달려드네요.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 하고, 이제 프랑스로 이동 합니다. 파리의 아파트를 7월 한달 간 임대 계약을 해놓았어요. 파리에 가면 자동차를 반납해야 하기에 그 전에 차 없이는 다녀 오기 힘든, 몽생미셸을 먼저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벨기에의 여정]